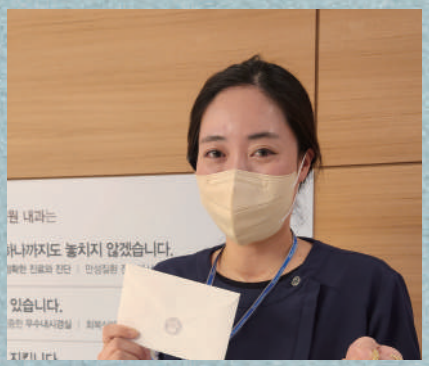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46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6.02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30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6년 계획수립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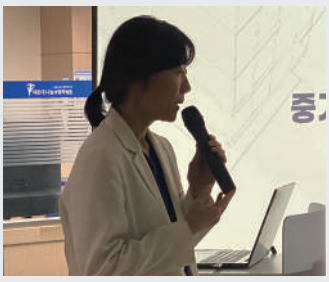
해나행 부문별 중장기전략 공유

(재활의료, 갑상선유방, 검진, 내과, 경영지원)

1/26(월)부터 재활의료 부문을 시작으로 2/7(토) 경영지원까지 부문별 중장기전략 및 2026년 계획수립을 위한 단계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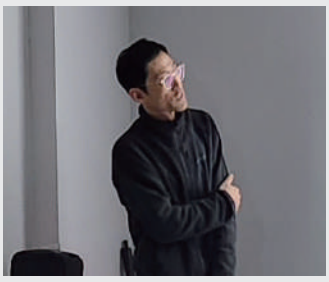
재활의료, 갑상선유방, 검진, 내과의 의료부문별 중장기 전략을 먼저 공유하였고, 경영지원 부서는 각 의료부문이 어떤 전략과 과제를 기반으로 어떤 방향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부문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팀별 운영계획 및 OKR이 수립되고, 우리병원이 올 한해 가야할 사업계획이 최종 수립되며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며 도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심화과정’

내부직원 AI 코치 양성과정

(02월~06월, 2·4주 화요일)

내부 직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AI 교육 기본과정 2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심화과정 참여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기본과정은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참여도와 실습 평가를 바탕으로 AI 코치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구성원이 심화과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반은 6월까지 월 2회 정기 운영되며, 고급 AI 활용 실습과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적용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과정은 단순 교육을 넘어 각 부서에서 AI 활용을 확산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교육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성장을 지원하며, 업무 현장에서의 변화와 조직의 긍정적인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그룹치료 프로그램 (02.14)

사회복지사와 작업치료사가 함께하는 그룹치료 프로그램, 이번 회차에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정서적 환기와 감각 자극을 돕고자 계피 화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가 함께 손으로 찰흙을 누르고 다듬어 화분을 빚고, 시나몬 스틱과 유칼립투스를 장식하여 리본을 묶어 계피 화분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마비로 인해 찰흙으로 화분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하는 참여자도 있었으나, 조금씩 다듬어 나가며 걱정과 달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수행 자신감과 긍정적 정서 변화를 보였습니다.

완성 후에는 작품 이름을 정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계피나무 숲', '건강지킴이', '희망 화분' 등 각자의 회복 의지를 담은 이름에는 앞으로의 재활 과정에 대한 기대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의 기능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치료적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스포츠체험 (02.09)



휠체어 럭비 체험을 위해 참여자 6분과 함께 부산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전날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 날씨로 인한 참여자분들의 컨디션이 걱정되었으나, 다행히 당일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비교적 따뜻한 환경에서 체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 후 참여자분들은 럭비 휠체어로 옮겨 타는 것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인 체험에 참여하셨습니다. 몸을 풀기 위한 구간별 달리기 훈련을 진행하고, 공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선수분들과 팀을 이루어 실제 경기를 경험해 보았는데, 특히 처음 체험에 나선 참여자분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선수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함께 웃으며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다소 쌀쌀했으나 참여자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만큼 팔과 어깨에 피로가 쌓였을 것으로 보여, 체험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체험을 계기로 퇴원 이후에도 휠체어 럭비를 통해 꾸준히 운동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젊은 참여자분들 중에서는 훗날 선수로서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어, 앞으로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휠체어스쿨 (02.02)

이번 휠체어스쿨 수업은 병원 문을 나서 조금 특별한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병원 인근에 위치한 청봉재활운동센터를 방문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참여하신 신규 참여자 한 분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스트레칭 방법 몇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움직임의 범위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굳은 근육을 풀어주어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이번 수업은 보호자와 함께 스트레칭을 진행하여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어깨부터 허리, 옆구리, 그리고 삼두 근육까지, 김동현 팀장님의 친절하고 세심한 설명 덕분에 모두가 높은 집중도로 정확한 동작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참여자분들의 모습에서 운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퇴원 이후 건강한 사회 복귀와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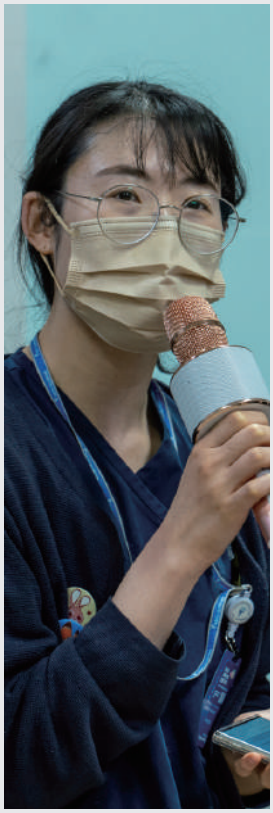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2.06)



6층 낮병동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하여,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멋진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1월 출석왕에는 박○수, 정○찬 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배○철, 박○수 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출석왕 박○수



피곤함을 이기고 매일 낮병동에 내원하며 출석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출석왕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석왕 정○찬

아들 덕분에 상장 받았습니다. 매일 같이 와주는 아들 고맙고, 사랑해! - 자립왕 박○수

너무 벅차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정진해서 자립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립왕 배○철

모두 축하드립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02.07)

매월 첫 번째 토요일,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이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십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를 배우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웃음치료는 4월 4일(토) 오후 3시 30분, 8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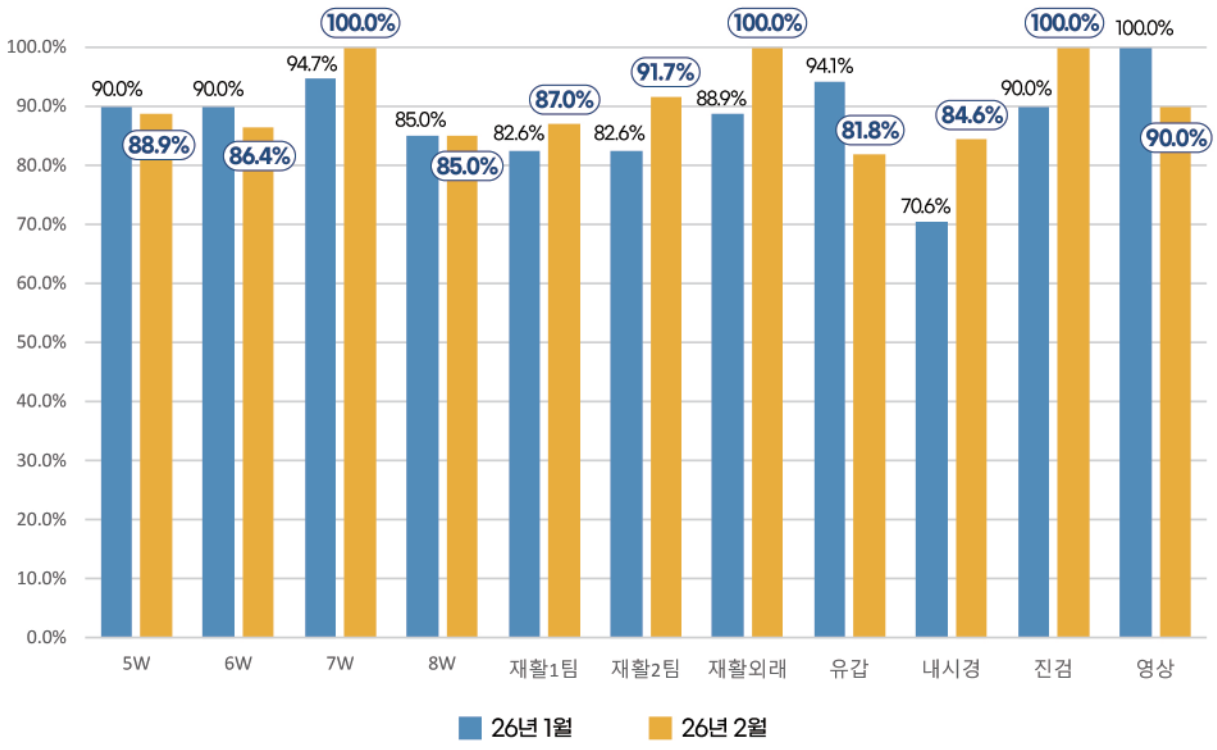
2026년 2월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02월 01일 ~ 2026년 02월 28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6년 1월 결과와 비교 분석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78	160	89.9%	+ 2.7%

2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고객님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한마디

해나행 칭찬직원



재활치료 1팀

물리치료사 박보영

박보영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발병 이후, 변화된 몸 상태에 우울한 기분이 기본이였고

특히 무뚝뚝한 저에게 박보영 선생님은

응원과 칭찬으로 재활을 해낼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소한 불편함 마저 자신의 일처럼 공감해주고 해결해줘서 감사합니다.

타 참여자분들께도 즐겁게 재활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는 모습에 칭찬합니다.

제 담당이 박보영 선생님이라 참 다행이었습니다.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내과 김상우 과장님 환송기념식 (02.02)



소화기내과 김상우 과장님의 환송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직 기간 동안 깊은 책임감과 성실한 진료로 내과·내시경센터의 발전에 기여하며 환자와 동료들에게 신뢰와 따뜻한 울림을 전해주셨습니다.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해나행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과장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02.23)



내과내시경팀 이설화 팀원

우리는 가족입니다.
02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5W) 조가현 간호사



재활간호팀(6W) 이지홍 간호사



환자안전전담 신지영 간호사



내과내시경팀 박혜경 간호조무사



내과내시경팀 김지원 간호사



재활간호팀(6W) 조예빈 간호사



재활치료2팀 공유진 작업치료사



재활치료2팀 하예린 작업치료사



재활치료2팀 홍종혜 작업치료사



재활간호팀(6W) 이상찬 간호사



재활치료2팀 이지안 작업치료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_김춘수 詩「꽃」 중에서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2026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백선미 병원장님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413호 회원 가입 (02.24)

부산 지역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사랑의열매 이수태 회장과 부산아너클럽 이성근 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아너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의 나눔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법인 나눔과행복의료재단 백선미 이사장님이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413호 회원으로 정식 가입하며 나눔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평소 ‘사람을 향한 마음’을 경영 철학으로 실천해온 백선미 이사장님은 이번 가입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며, 재단이 추구하는 ‘나눔’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료법인 나눔과행복의료재단,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은 이날 ‘척수통합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연합모금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척수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의료재단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척수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적인 재활 환경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인 재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생명나눔실천본부 의료비지원 (02.12)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이OO님이 선정되어 총 25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OO님은 사고로 중증 척수손상을 입어 현재 장기간 재활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제한된 신체 기능 속에서도 꾸준히 치료에 참여하며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외 시간에는 자기 계발과 학업을 병행하며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와 간병비는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재활치료 및 심리·정서 치료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비 보조를 넘어, 한 청소년이 다시 삶의 주체로 서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사회사업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참여자와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회복과 자립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미용 서비스 (02.10 / 02.13)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81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스물일곱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27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새해맞이 음식

“나는 이번에는 병원에서 새해맞이 합니다.”

라는 이야기에,

정말 멋들어진 식사로
병원에서 보내는 새해가
오랜 시간 따뜻함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기를 듬뿍 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엄마의 손맛을 한껏 담은 새해맞이 음식을
한상 차림 해 보았습니다.

시원하고 깊은 맛의 탕국에
스쳐지나가도 한방 기운이 느껴진다는 부드러운
한방갈비찜을 준비하고,
튼실한 새우가 중심을 단단하게 잡고 있는
고소한 꼬지전을 더해,
여기에 고사리, 도라지, 배추로 삼색 나물을 완성하면
설날 분위기 한껏 느껴지는 새해맞이 한상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약과도 빠질 수 없겠죠?ㅎㅎ
약과로 딱 마무리되는 한상으로 아쉬움은 저 멀리 보내고,
따뜻함이 주위에 머무르기를 기원해 봅니다.

함께하는 순간들이 온기로 인해 따뜻해지기를,
영양팀은 온 마음을 다해 매 끼니에 품을 더 하겠습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2.13)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_「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사람이,
같이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가족과 이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친화력이 높은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과학에 근거하여 서술한 책입니다.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입니다)

이 책 내용처럼
다정한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명절이 돌아 왔습니다.

잔소리 폭탄과 눈치 보기(ㅎㅎ)에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정함을 한껏 끌어 내야할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양팀은
명절 연휴에 스트레스와 기름진 음식에 시달릴 위장을 위로 하고자
화끈한 맛의 불낙새전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정함과 배려가 넘치죠?ㅎㅎ

화끈하게 한 그릇 하시고,
다정함으로 무장해 스트레스 없고 따뜻함만 남아 있는 연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마흔여섯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46

오늘의 제시어는 '외갓집(또는 외할머니)'

돌아갈 수 없어서 더 선명해지는 곳이 있다.

글쓰기 온·오프 모임에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66일간 매일 글쓰기 챌린지와 21일간 필사 챌린지를 진행한다. 회원은 300여 명, 운영진은 15명. 그중 운영진으로 함께하고 있는 내가 이번 66일 글쓰기 챌린지(10기) 담당을 맡게 됐다.

문제는, 이걸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다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격주로 번갈아, 매일 회원들에게 제시어(영감어)를 올리기로 했다. 참여 방식은 아주 자유롭다. 그날의 제시어를 보고 그대로 쓰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자유글을 써도 된다. 중요한 건 '매일 쓰기'라는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것뿐이다.

그렇게 올해 1월 5일, 66일 글쓰기 챌린지 10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나는... 사서 하는 고생을 시작했다. 격주로 내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매일의 글감과 연결되는 제시어를 찾아야 했다. 단어 하나를 고르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니. 밤이 되면 어김없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싶은 후회가 밀려왔다.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진짜로 매일 그랬다.

그러던 13일차, 나는 제시어로 '외갓집(외할머니)'을 골라 올렸다. 그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건드릴 줄은, 올리기 전엔 미처 몰랐다. 댓글에서도 느껴졌고, 무엇보다 그 제시어로 글을 쓴 회원들의 글을 읽으며 확실히 알게 됐다. 우리 마음속에는 외갓집이, 외할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저마다의 사연은 슬프기도 했고, 또 어떤 건 눈이 시리도록 따뜻했다. 평균 연령대로 치면 아마 40~60대쯤일 텐데, 자연스레 어린 시절의 풍경이 많이 소환됐다. 그리고 그 풍경 한가운데엔, 이제는 부재한 외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더 선명했고, 더 아팠고, 더 다정했다.

그날, 내가 함께 올렸던 글은 이런 내용이었다.

그 당시 글

13일차 제시어: 외갓집(또는 외할머니)

> 詩 노란 개나리 철길 中
>
> 이제,
> 외할머니도 외갓집도 없지만
> 개나리는 세월이 지나도 시간의 흔적을 지우며
> 여전히 그대로의 모양으로 노랗게 피어나
> 외갓집 가는 길을 잊지 않는다.
>
> _서형《엄마의 채송화 꽃밭》

어릴 적 외갓집에 가는 길은 꽤나 복잡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우리 집에 승용차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택시조차 타는 게 조심스러웠다. 생각해보면 같은 부산이고, 차로 2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인거 같은데, 어릴 적 내가 느끼는 세상은 분명 더 넓고 느렸을 것이다.

장림(부산시 사하구)에서 네 식구 버스를 타고 구덕운동장 역에서 내린 후 환승을 한다. 당시는 환승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을 터이니, 그냥 갈아탔다. 두 번째 버스는 산복도로를 따라 거칠게 올라갔고, 산 중턱에서 내린 후 가족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그렇게 대청공원(지금은 중앙공원) 아래 비탈길에 외할머니는 우리를 반가이 맞이했다.

외갓집은 늘 분위기가 좋았던 거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의 엄마, 엄마의 동생들이 함께 하는 모이는 자리고, 시대적 분위기로 명절이나 제사 때나 볼 수 있었기에 반가움이 더 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어린 나에게는 7남매 중 장녀였던 엄마이기에, 이모랑 외삼촌이 많아서 용돈을 많이 받아 좋았던 기억이 난다.

문득, '서형'작가의 시집을 읽다가 이 시에서 멈칫했다. 철길이 아닌 비탈길이고, 개나리가 아닌 벚꽃이 만발했지만, 이제 그곳에 외할머니도 없고, 외갓집도 없었다는 걸 느꼈다. 딱 1년1개월 전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오랜 병수발로 지쳤을 엄마는 당신의 남편을 보낼 때보다도 더 큰소리로 울었고, 더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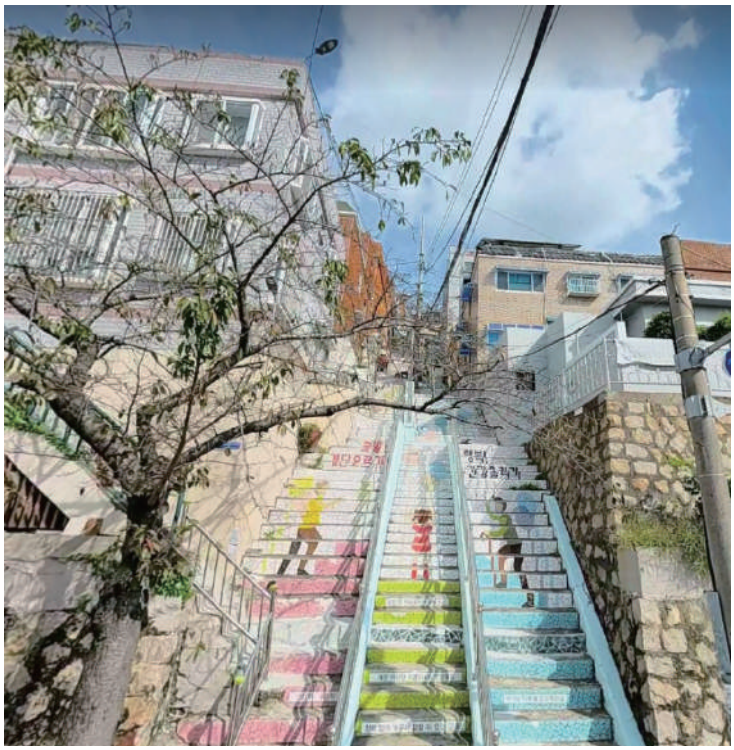
이제 엄마의 엄마는 그곳에 없고
어머니의 친정도 그곳에 있지 않지만
벚꽃은 비탈길에서 시간의 흔적을 지우며
여전히 그대로의 모양으로 피어나
외갓집 가는 길을 잊지 않는다.

여기까지

아마도 그날의 짧은 글이 오래 머문 이유는,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외갓집의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병원소식지 원고를 준비하며 그날의 글을 다시 펼쳐보니, 그 생각이 문득 또렷해졌다. 누구에게나 마음 한쪽에 '외갓집' 같은 장소가 하나쯤 남아 있지 않을까? 지도에는 더 이상 찍히지 않아도,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어도, 어떤 계절의 냄새나 골목의 기울기, 누군가의 목소리만으로도 단숨에 되돌아가게 되는 곳이 있다. 바쁜 하루를 견디다 보면 그 길을 잊고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문득 피어나는 꽃 하나에 마음이 풀리며 그리움이 먼저 걸어 나오는 순간이 생긴다.

혹시, 지금 병원소식지를 통해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외갓집(외할머니)'의 장면은 무엇인가요?



카카오로드맵으로 캡쳐한 외갓집 가는 길.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46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6년 02월 27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